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5월 27일(금)
--(음력 4월 27일)--
Пятница
27 мая 2022г.
№ 20 (1198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2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1호 중학교에서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다. 학교 졸업생들이 이날 학교 교사들과 직원, 그리고 학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고 학교와 작별인사를 하였다. 학교 수업은 더 이상 없고 이들에게는 졸업국가시험만 남았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1000개의 주택가' 연방 프로그램에 따른 주요 보수공사 10월 1일 완료

이에 대해 사할린 주정부 회의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과제를 지시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극동지역에 1000개 주택가' 연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17개 지역의 67개 주택가 구역에서 주요 보수공사가 진행된다. 이 명목으로 연방 예산에서 4억1800만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사할린 주택공공경리부의 나탈리아 쿠프리나 장관에 따르면 포로나이스크 지역 9개 주택가 구역에서 보수공사를 비롯해 유즈노사할린스크 8개, 홈스크의 5개 주택가 구역에서 공사가 이뤄진다. 주택가 구역에서는 차도와 마당길 공사뿐 아니라 벤치, 쓰레기통, 아동 놀이터 및 운동 시설들도 설치한다. 또한 가로등 기둥도 새로 고치고, 고체 폐기물 수거를 위해 콘크리트로 공간을 정비한다. 모든 구상 계획은 주민들과 논의 및 합의한 후 지역 행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또한 올해 주 예산으

로 68개 주택가 구역에서 주요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중 유즈노사할린스크에 14개 구역, 홈스크 시지구 12개 구역, 우글레고르스크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에 10개 구역에서 보수공사가 이뤄진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의 모든 주택가를 단번에 보수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혀 사할린과 쿠릴에서 현재 대규모 보수공사는 2년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2021년에는 700개 주택가 구역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됐고, 2022년에는 공사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 명목으로 주 예산에서 2억6500만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보수공사 프로그램은 최고 800개에서 최대 1000개 주택가 구역을 계획하고 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6월 12일 러시아의 날까지 남부 주요 지역들에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신청 절차 없이 50개 복지 혜택을 받는다

요즘에 17개의 공공서비스를 여타 서류 제출 없이도 받을 수 있으며 35개 사회적 지원책이 7월 1일까지 능동적 정책으로 전환 실시된다는 것을 사할린 주주마 회의에서 2021년 주 정부 활동 보고 중 주지사가 밝혔다.

"2022년 예산으로 우리는 모든 사회적 지원을 유지했다. 유치원에 학부모 비용을 인상하지 않았고, 8세 -17세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매달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할린 지역의 사회적 지원책은 94개 국가 서비스에 따라 가장 다양한 200개의 면제 혜택, 보조금, 보상금이며 이 중 52개 조치는 능동적 조치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지사가 주장했다.

2022년 주 예산 편성 시 사회적 의무 이행의 우선적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 사회적 분야 프로그램에 740억 루블리 이상이 배정되었으며 그 중 190억 루블리 이상이 주민의 사회적 지원 명목으로 배정되었다.

단신

'사할린 건축 엑스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5월 25일 - 26일 이틀간 사할린주 건축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사할린 건축 엑스포' 제20회 특화 전시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틀리짜' 무역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는 민간 및 국가의 26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 중 30%는 처음 참가하는 기업들이다. 예년과 같이 전담회장에는 사할린의 기업들을 비롯해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업체들이 모여들었다.

프로그램 일환으로 3차 건설산업 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건축학과 대학생들의 건축 기획 발표 및 '사할린 건축산업을 위한 인재 양성'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고르니 워즈두흐', 시민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마스터 플랜은 앞서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과 제안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모임에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을 비롯해 정부 및 지방 행정부, 의회, 생태학자의 대표들, 스포츠 및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마스터 플랜 준비 목적은 '고르니 워즈두흐'에서 4계절 휴식을 위한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스포츠 관광단지의 슬로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보 및 자전거 트래킹이 제공되며, 마스터 플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가족 단위의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한 것들로서 어린이 놀이터, 숲 정글림, 암벽타기, 스케이트 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로 실내 스포츠 단지, 문화 오락센터와 박물관이 건설된다.

주지사, 사할린 해변 정돈 지시

주 정부 회의에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유명 휴양소 준비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6월 초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자주 찾는 휴양소 10곳 이상을 비롯해 코르사코브, 아니와, 네벨스크, 마카로브, 홈스크 지역에서 정비 정돈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보트니크(토요 대청소)는 사할린주 관광부와 지역 관광 정보센터, 도시 지역 행정부, 관광 안내자 그리고 사할린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토요 대청소가 라구쉬카 산, 오후츠크에 해안가, 아니와, 네벨스크, 투나이차 호수, 홈스크 야블로초니 마을에 있는 사도브니키 해변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주에는 찌호예만, 노위코워와 오조르스코예 마을들, 아니와 등대 등지에서 대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81루블리 5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창의적인 일을 좋아하는 박성순 어린이 도서관 수석 서지학 전문가

이번 기사 주인공으로 누구를 할까 고민했다. 해마다 5월 27일은 전 러시아 도서관의 날(사서의 날)로 기념한다. 그리고 6월 1일은 국제 어린이 보호의 날로 기념한다. 이 두 명절과 관련된 사람을 찾으려고 해서 사할린주 어린이 도서관으로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어린이 도서관 관장 대행 옥사나 코르니엔코는 바로 "박성순(올가 아나톨리예브나) 수석 서지학 전문가를 추천한다. 도서관 시스템에서 꽤 오래 일하시고 경험도 많고 고급 전문가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했다.

사할린주 어린이 도서관은 도시 남쪽 미라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일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입구도 따로 있고 1.2 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공간이 너무 작아서 새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키가 크고 인상이 밝은 박성순 수석 서지학 전문가는 우선 도서관을 안내하며 독서실, 아동들을 위한 방,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방, 서지 정보방, 자료 센터, 교수법 교실, 콘퍼런스실 등을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박 전문가에 의하면 주 어린이 도서관은 만 14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많아 이들을 위한 독서실이 다르고 활동도 다르다. 한 반에서는 학령 전 아이들을 위한 독서가 열람되고, 담당 사서들은 이 나이 또래 친구들을 위

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다른 독서실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곳이고 또 다른 방에는 5-7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활동한다.

어린이 향토실에 들렀더니 박성순 수석 서지학 전문가는 "이 방에는 사할린주에 대한 지역 작가들이 쓰는 책들이 열람있다"면서 유명 러시아 작가 김 아나톨리의 동화책 2권을 보여주기도 했다. 신기했다.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김 아나톨리 작가의 책을 처음 봤다. 이 책은 주내에서 유일하다고 한다.

50대 중반의 박성순 씨는 도서관 시스템에서 일한 지 올해 35년이 된다. 그가 어렸을 때는 꿈도 많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영어가 마음에 들어 영어 통번역가에 대한 꿈도 가졌었다고 한다. 그가 엄청 존경하는 영어 선생님께서 이 꿈을 말하니 그분이 "도서관 사서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라며 인질을 주었다고 한다.

"아마도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제 적성에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선생님 생각이 옳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 하바롭스크 문화대학에 입학하고 '문학 및 예술문학의 사서·서지학'을 전공했어요. 아버지는 제 선택을 반대했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 하니 엔지니어가 되었으면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저를 응원하셨어요. 이걸 전공하게 된 것을 후

회하지 않아요. 지금은 일이 정말 재미있거든요."라고 박 전문가가 도서관 전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할린주 네벨스크 시 출신인데 1987년에 대학을 졸업하자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서관 시스템에 파견되었다.

사서, 서지학 전문가 등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도서관 본관과 분관에서 잘 근무했었고, 2008년부터는 주 어린이 도서관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도서관들에서 디지털화를 하려고 컴퓨터 연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도서관 사이트 운영도 배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은 바로 제가 맡아온 일 중 하나입니다."라고 박 수석 전문가가 말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창의적인 면이 많아 좋다고 한다. 서지학 전문가로서 정보수집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보들을 체계화하고 생성한다.

그가 개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사할린주 내 상징(문장 및 깃발) 여행'이다. 전자 리소스로 이 인터넷 프로젝트는 2021년에 '우수 지역(향토) 출판물' 주 경연대회의 '전자 향토 출판물'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가 자부심을 갖고 소개한다는 기획의 또 하나는 '사할린 작가들이



아이들에게만 블록이다.

"제가 어린이 도서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린이들에게 흥미롭고 유용해야 합니다."라고 박 선생은 말한다.

그는 정보수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사실 모든 정보를 사이트에 올리기 전에 재차 확인하고 검토하고 조사한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검색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도서관 전문가로서 여러 목표를 이루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맞추려면 활동도 현대화해야 하고 가끔 운영 방법도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내에서는 여러 활동교실과 동아리 활동이 있고, 행사도 다양하다. 주 어린이 도서관은 인기가 많다. 많은 어

린이와 부모들이 도서관을 자주 찾아오는 것이 이를 확증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활약하는 박성순 수석 서지학 전문가는 요즘 즐기는 취미도 직장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다. 바로 사진 촬영이다. 박 선생의 둘째 딸이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남겨둔 사진기를 자신이 사용하게 되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사진촬영 교육과정을 밟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집에서도 하고 친척들의 독사진, 단체사진을 엄청 찍었어요. 또 우리 가족은 낚시와 야외를 즐기는 편이라 자연 촬영도 많이 합니다. 물론 도서관 동료들도 이 취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 도서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사진 담당으로 지목합니다."라고 박 선생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집안에 외동딸로서 현재 그는 한국에 영주귀국하신 부모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한국과 오가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우리 부모님은 해마다 사할린에 오십니다. 한편으로 한국은 보건의 잘 돼 있어서 우리 부모님 건강에 대해 덜 걱정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매일 영상통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아보고 싶어요."라고 박성순 씨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명했다.

자기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고급 수준의 전문가, 사랑스런 아내, 두 딸을 사랑으로 잘 키운 엄마, 존경받은 동료, 좋은 친구로 인정받고 있는 박성순 씨는 어린이를 위해 앞으로 도 도전할 일이 많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20개 지역에서 온 자원 봉사자들 사할린에서 탐색 시작

5월 22일(일) <2022년 - 극동 전선> 탐사 수색 착수식이 열렸다. 세계2차대전 말기 사할린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 및 유품들 탐색하기 위해 러시아 20개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할린에 왔다. 이번 탐색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대규모 작업 중 하나다.

대규모 탐색 참가자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임시 조성된 야영 캠프가 있는 투만나야 강 주변 지역 캠프에 자리를 잡은 가운데 투만나야 및 길조브카 강 일대와 들린나야, 플레쉬와야, 읍조르나야 언덕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획은 교육적이며 전문가들의 경험적 강의를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주에 걸쳐 참가자들은 2차 세계대전 시기 전사한 장병들의 흔적을 찾은 계획이다. 이어 사할린의 탐색자들이 탐색을 이어가는 가운데 발견된 흔적들은 군 영광의 날에 포베지노 마을 기념관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스미르니흐 지방 행정부가 전했다.

Волонтеры из 20 регионов начали поисковую экспедицию на Сахалине

22 мая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 2022".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и волонтеры из 2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на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бойцов, погибших здесь в конц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Экспедиция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частники большой экспедиции разместились в полевом поисковом лагере в районе реки Туманной, где в 2020 и 2021 годах уже создавался временный лагерь. Планируется исследовать местность, прилегающую к рекам Туманной, Гильзовке, к сопкам Длинной, Пleshивой, Обзорной. Важная часть проекта —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эксперты проведут познавательные лекци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искать останки воинов,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алее сахалинские поисковики продолжат поиски, найденные останки будут захоронены в День воинской

славы на мемориале села Победино, сообщает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мирных.

사할린 팀, 전 러시아 연금자 체육대회 승리를 위해 출전

사할린주 형성 75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지역 단계 제7회 러시아 연금자(노인) 체육대회가 마무리됐다. 15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온 참가자들은 며칠에 걸친 경기 참가로 사할린 선발 팀에 들어갈 권리를 얻고, 전 러시아 단계 사할린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경쟁했다.

체육 종목으로 체스, 수영, 사격, 다트에서 실력을 겨루었고, 마지막 날 고령세대의 대표자들이 육상과 혼합 계주에 출전했다. 체육대회 참가자는 총 183명이며 그중 70세 이상이 30명이다.

혼합 계주에는 8명으로 구성된 17개 팀이 참가했으며, 노르딕 워킹, 공굴리며 달리기, 농구 골대에 공 넣기, 단거리 달리기, 축구 드리블, 골문에 공 넣기, 다트, 장애물 달리기에서 경쟁했다. 주어진 각 종목을 잘 수행한 팀들이 우승으로 점수를 얻었다. 단체별 체육대회 결과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팀이 1위, 코르사코브의 '1팀'이 2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노인자원 봉사자 대표팀이 3위를 차지했다.

전 러시아 단계 노인 체육대회는 여름에 사마라에서 열릴 예정이다라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цев поборется за победу в Спартакиаде пенсионеров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VII Спартакиады пенсионеров России, посвященной 75-летию област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спортсмены из 15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боролись за право войти в сборную команду области и представит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этапе.

Испытания прошли в дисциплинах по шахматам, плаванию, пулевой стрельбе и дартсе.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ден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и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й эстафете. Всего в спартакиаде выступили 183 участника, 30 из которых в возрасте 70+.

В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й эстафе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7 команд по 8 человек. Он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е, беге с чеканкой, броске мяча в кольцо, гладком беге, ведении футбольного мяча, пенальти по воротам, дартсе и беге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За каждое правильно выполненное задание команды получали очки, из которых складывалась победа.

По итогам спартакиады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а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ебро завоевала "Команда 1" из Корсакова. Бронзовым призером стала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этап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стоится летом в Самаре,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러시아에서 다큐멘터리 교양 영화 촬영

러시아 사회단체 '즈나니예(지식)'가 <교양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위한 전 러시아 교양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 가운데 2022년 5월 27일까지 기성 또는 초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제는 예술, 문화, 기술 및 과학, 사회학, 인류학, 우주, 역사에 관한 것이다.

1차 경연의 우승자들은 모스크바로 초청되어 모스크바에서 집중적인 교육과정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며, 활동교실에 참여하고, 유명 영화제작자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이후 모든 경연 참가자들은 피칭(영화 투자 설명회)에 참가하는데 피칭 결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우수 기획자를 선정하고, 피칭 우승자들에게는 자신의 영화를 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는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교양 영화> 축제 경연 프로그램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영화제 전문 심사위원단이 몇 개 부문에서 경연의 우승자를 선정한다.

<교양 영화> 기획은 러시아 교양부와 러시아 연방 문화부의 지원으로 실시된다. 이 기획의 목적은 강의실의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양 콘텐츠를 창조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 대상자들을 확장하는 데 있다.

(8면에 계속)

러시아어로 '어머니를 부탁해' 독후감

사할린주 도서관, 한국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 공모 결과 발표

한국 신경숙 작가의 작품 '어머니를 부탁해'에 대한 독자 독후감 공모전 결과가 5월 19일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현대문학과 작가들에 대해 관심을 이끌기 위한 공모전이 지난 2월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시작된 가운데 주최 측은 경연에 참가하는 독자들이 유명 한국 작가의 작품 내용에 대한 생각과 인상을 공유하길 바랐다.

이번 공모전 심사위원으로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 출장소 박상태 소장, 사할린 국립대 엘레나 이콘니코와 러시아 문학과 교수, 사할린 국립대학교 언론·역사·동양학 대학 이나 코르네예와 부학장 등이 참여했다.

이 대회는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와 사할린 한국 교육문화원이 후원하였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시상식은 대회 주최자인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국제협력 정보센터 전문가 공 크리스티나가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 참가자들에게 엘레나 이콘니코와 교수와 최 빅토리아 작가가 따뜻하게 환영하고 글쓰는 작업에서 기쁨과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했다. 최 작가는 이날 본인의 여러 단편소설이 실려있는 소설 모음집 '리조마. 66개의 꿈의 도둑들'을 사할린주일반과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모두가 인상이 깊었던 '어머니를 부탁해' 독후감 공모전 결과 3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6중학교 상담교사 빅토리아 레온찌예와, 2위는 사할린 국립대 언론·역사·동양학 대학 2학년생 율리아 누지나, 1위는 같은 학교 5학년생인 아리나 우샤예와가 차지하여 상장을 받았다.

이번 기획의 협력으로 나신 새고려신문사는 우수작을 지면(4면)에 실기로 했고 또한 수상자들의 에세이는 도서관 홈페이지 공모전 항목에 게재된다.

(본사 기자)

(사진: 주 일반 과학도서관이 제공)



동광의 운학문양 청자 화병 주미술박물관에 전달

국립박물관의 날을 맞아 지난 24일(화) 사할린주문화부 장관 논나 라브리크는 사할린주미술박물관(관장 올가 무라토히와)에 한국 동광의 운학 문양 청자 화병을 기증했다.

이 청자 화병은 2019년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에서 라브리크 장관에게 선물했는데 주 미술박물관에서 이 청자를 소장품으로서 필요하다는 말에 문화부 장관이 바로 전달하기로 했다. 장관은 이 청자 화병이 많은 관객들에게 아름다움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한국 마사회는 오랫동안 KYDO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를 후원하며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몇 년간 이 오케스트라의 사할린 청소년들의 합동 공연을 사할린과 한국에서 개최했다.

문화교류의 상징인 이 운학 문양 청자 화병은 미술박물관의 한반도 미술품 컬렉션 소장물로 보관될 것이라고 하이 올가 수석 연구전문가가 전했다.

이날 그는 짧은 전달사에서 청자 아름다움과 역사에 대해 발표하고 운학 문양의 이런 양식의 화병은 처음 소장되었다고 하였다.



논나 라브리크 장관(왼쪽), 올가 무라토히와 관장, (주미술박물관 제공)

(배순신 기자)

충북대 사할린즈,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봄날 즐겨

가정의 달 맞아 사할린 한인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충북대 동아리 '사할린즈(회장: 러시아어언어문화학과 2학년 신민호 외 18명)'가 21일에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한 '가족애(애)봄날' 행사에 참여해 사할린 한인과 가족의 정을 나눴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 한인 인식개선 캠페인, 사할린 한인 어르신과 함께하는 비즈 팔찌 만들기 체험 부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즈'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사할린 한인사 홍보물 '사할린 한인 역사 신문' 300부를 배포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사할린 한인사 퀴즈'도 진행해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학생들은 사할린 한인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사랑의 비즈 팔찌 만들기 체험'도 진행해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비즈팔찌를 만들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아리 회장인 신민호(러시아어언어문화학과 2학년) 학생은 "동아리 학생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사할린 한인에 대해 알리고,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 동아리 '사할린즈'는 지난 4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한 2022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 "동아리아, 멘토링 하자!"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일상생활 지원과 멘토링을 통해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자체 출판물 제작 등을 통해 홍보에도 앞장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이웃 / 이정록

0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니
두부장수는 종을 흔들지 마시고
행상 트럭은 앰프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써서 학교 담장에 붙이는소사 아저씨 뒤통수에다
가담장 옆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한마디씩 날린다
공일날 운동장 한번 빌려준 적 있어
삼백육십오일 스물네 시간 울어대는
학교 중 한번 꺼달란 적 있어
학교 옆에 사는 사람은 두부도 먹지 말란 거여

꿈치며 갈치며 비린 것 한번 맛볼라치면
버스 타고 장터까지 갔다 오란 거여차
비는 학교에서 내줄 거여 도대체
목숨이 뭔지나 알고 분필 잡는 거여
호박넝쿨 몇 개 없었더니
애들 퇴학시키듯 다 잘라버린 것들이
말 못하는 담벼락 가슴팍에 못질까지 하는 거여
애들이 뭘 보고 배울 거여 이웃이 뭔지이
따위로 가르쳐도 된다는 거여

“교육열이야 지구촌 1위. 아이 공부에 늘 매달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느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하고,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수학이며 과학은 2년 치 3년 치 미리미리 공부해 뒀어 합니다. 학교 수업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건, 이런 걸 또 학원에서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풍경. 아침 8시 반쯤 등교를 하고 오후 4시쯤 하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 집으로 귀가하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이라면 학원에서 저녁도 사 먹으며 그야말로 가열차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별 뜨는 깜깜한 밤까지의 일과입니다. 파김치가 되어 집에 와서 잠을 자느냐. 물론 그렇지 못하죠. 학교나 학원에서 내 준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수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게 그렇게 불행의 일기장을 채워나가는 거죠. 대학이요? 그렇게 해도 아마 만족할 만한 학교 학과로 진학하지는 못한다는 소식들입니다. 별의별짓을 해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언제나 즐비하니까요. 청소년 불행지수조차 OECD 1등에 가까운 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의 나라. 너무 끔찍한 나머지 말로 내뱉기도 힘든 이런 기록들을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경쟁이 만든 구도가 이렇게 아이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정록 시인이 던지는 구어의 맛이 잠시 우리 교육이 걸어야 할 방향을 짚어줍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사할린 주민들, 화재가 났던 숲에 삼천 그루의 전나무 묘목을 심어

사할린에 3천 그루의 전나무 묘목을 심었다.

5월 21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부근에서 조성된 '추억 동산' 행사에 80여 명 이상의 관심을 가진 사할린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수렵 및 산림청 직원들이 주관했다.

묘목을 심는 구역은 주최 측이 잘 알고 있는 곳으로 20년 전 대규모 면적의 숲에 화재가 났던 지역이다. 지난 가을에는 화재가 났던 이 숲에 낙엽송을 심었고 이번에 사할린의 풍성한 녹색 지대를 복원하기 위해 하얀 가문비나무를 심기로 했다.

<추억의 동산> 국제 행사는 2020년에 처음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사는 1945년 승리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맥락에서만 아니라 세계 기후보고서, 기후 온난화와의 투쟁에 협력, 탄소중립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숲에 나무 심기는 전 지역에서 진행되며 6월 22일에 완료된다.

환경보호 행사는 숲들을 복원하기 위한 대규모 계절적 활동의 일부이다.

"사할린주에 산림 복원은 늦가을까지 계속된다. 올해 사할린주에는 800헥타르 이상의 새로운 숲을 위해 묘목을 심을 계획이다."라고 사할린주 수렵 및 산림청 다닐 두다레브 부청장이 덧붙였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музею преподнесли в дар селадонную вазу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музеев преподнесла в дар Сахалинскому областному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музею селадонную вазу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летящих журавлей среди облаков.

Эта ваза была изготовлен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временным мастером в 2019 г. и была подарена министру культуры Ким Нак Суном, президентом Общества верховой ез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менно эта организация много лет поддерживает КИДО – Коре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оркестр, состоящий из ребят сельских местностей. До пандемии у КИДО было много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с молодыми музыкантами-оркестрантами с Сахалина, они вместе выступали на концертах в различных городах Южной Кореи и Сахалина.

Ваза, подаренная в честь совместных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заняла по праву место в коллекции музея.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раздела искусств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льга Хай выразила радость от полученного дара и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вазы такой формы в коллекции музея не было.

- На дне вазы иероглифами написано Донгван. Современный мастер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декоре использует популярный мотив – изображение белых журавлей, парящих среди облаков. Журавли славились долголетием, являлись благожелательным символом процветания и бессмертия. Этот тип орнамента был характерен именно для корейской керамики. Автор следует лучшим традициям в технике сангам (инкрустация цветными глинами), изобретенной корейцами в 12 веке, - поделилась Ольга Хай.

Виктория Бя



В СахОУНБ подвели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по творчеству 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Син Кёнсук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читательских эссе, посвящ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ю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Син Кёнсук (Шин Кун-Суук), подвели 19 ма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Конкурс, призванный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писателя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артовал в СахОУНБ в феврале.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лагалось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мыслями об идеях, высказанных автором в своих книгах,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прочитанного и другим.

В состав экспертного жюри вошли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Санг Тхэ,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о учебной работе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нна Корнеева.

Спонсорами конкурса ста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и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Церемонию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вела организатор конкурса, специалис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ОУНБ Кристина Кон..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и профессор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и сахалин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Цой Виктория, которая передала в дар СахОУНБ сборник рассказов «Ризома. 66 похитителей снов», где опубликованы и е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дипломом III степени наградили Викторю Леонтьеву (педагог-психолог средней школы № 6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иплом II степени по праву получила Юлия Нужина (студент-



ка 2-го курса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Диплом I степени вручили Арине Ушаевой (студентка 5-го курса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Лучшие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кор. 새고려신문,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и размещены на сайте ГБУК СахОУНБ в разделе Конкурсы.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работы лауреатов конкурса читательских эссе, посвящ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ю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Син Кёнсук (Шин Кун-Суук)

Стоит задуматься каждому

Виктория Леонтьева (диплом 3-ей степени)

Есть ли у человека кто-нибудь роднее матери?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л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 количества прожитых лет, человеку все равно необходима мама, ее ласка, ее взгляд, ее забота. Мать – первый учитель ребёнка, его самый лучший, близкий и верный друг. Пока дети еще совсем маленькие, они нуждаются в материнской любви, заботе, ласке, улыбке, а когда они взрослеют, не каждый понимает, что теперь уже их мама нуждается в поддержке ласковым словом и любовью, что у мамы тоже ес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мечты и желания. Так и в произвед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Син Кёнсук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Пак Соньо – преданная жена и любящая мать четверых детей, которая всю свою жизнь посвятила семье. Ее главной мечтой было дать детям то, чего не было у нее – образование, знания, возможность увидеть целый мир, посвятить себя любимому делу. Неустанно трудясь изо дня в день Пак Соньо помогла встать на ноги всем своим детям, но они, так же как их отец, поняли, как она им дорога, только когда старая женщина внезапно исчезла, просто потерялась в толп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вокзала большого города...

Это очень грустная история о том, как в один миг мы можем лишиться самого драгоц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в нашей жизни. Повествование книги ведется от лица нескольких героев: старшего сына, старшей дочери, мужа и самой матери. Изюминкой произведения, для

меня, стало обращение рассказчика на «ты», заставляя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персонажем рассказываемой истории.

Возвращаяс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 содержанию произведения. Во время поисков дети расклеивают объявления, расспрашивают возможных очевидцев. И чем больше члены семьи собирают информацию о матери, чтобы сдвинуть поиски с мертвой точки, тем больше они понимают, как же мало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они знали р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являлся самым важным для каждого из них. По мере прочтения произведения мы узнаем историю жизни пропавшей женщины, как много она отдала ради родных и как порой они ею пренебрегали. И только потеряв, поняли на сколько она ценна была для них. Читая эту книгу, в некоторых ситуациях, я вижу схожесть и с моей жизнью. В суете дней и круговороте личных проблем, не всегда удается позвонить маме и узнать о ее делах, а если и получается позвонить, то не всегда можешь внимательно послушать ее, выкинув другие мысли из головы. Так и живут люди с мыслью «успею пообщаться», «позвоню завтра». Вот только это завтра может и не наступить...

Эта история, должна быть услышана, ведь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эта тема близка практически для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Содержан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не просто набор слов и мыслей автора. Это то, о чем стоит задуматься каждому из нас.

Россий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в поисках социализаци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4 мая — ИА РУСКОР.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рума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стоялся кинопоказ фильма «Ким Чжи Ён, 1982 года рождени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бучающиеся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ПбГУ из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корееведения СПбГУ профессор Сергей Курбанов отметил, что кинокартина показывает, как регионализм может влиять на поведение обычных людей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зн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в работе переводчика.

После кинопоказа состоялась дискуссия по итогам просмотра, в ходе которой студенты затронули

вопросы соврем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 двух стран. Студентка второго курса Елизавета Баконина, в рамках своей курсовой работы учававшая роман писательницы Чо Нанчжу, экранизацией которой и стал кинофильм «Ким Чжи Ён, 1982 года рождения», поделилась мнением о том, что киноверсия имеет несколько отличий от книжной. В частности, по ее словам, в книге поднимаемые автором проблемы показаны более наглядно и остро.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дискуссии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ыступила студент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Ли Хасон.

Фильм «Ким Чжи Ён, 1982 года рождения» режиссера Ким До Ёна, вышедший на экраны в 2019 году, вызвал большой резонанс в корей-

ском обществе. В нем поднимаются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роль женщины в семье, материнство, социальная занятость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женщин до и после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инокартин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пособах восприятия мира и поисках своего предназначения в нем.

В завершение дискуссии, прошедшей в друж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корейские и российские студенты поделились друг с другом личным опытом социализаци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и рассказали об опыте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Это позволило участникам обсуждения сравнить модель взросл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не только двух стран, но и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Виктория Попов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Хан Док Су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К

21 ма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фициально назначил Хан Док С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страны. Это произошло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утвердило его кандидатуру большинством голосов.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ручил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назначении на должность Хан Док Су,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ил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о второй раз. В 2007-2008 годах, в период правл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о Му Хёна, он уже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Во время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й Хан Док Су заявил, что его глав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станет стабилизация экономики.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парламентом он обещал сделать всё, что в его силах, чтобы оправдать доверие президента, пообещав добивать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финансовой устойчивости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приветствовала реш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выразив намерение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Тобуро, которая имеет большинство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стало возможно утверждение ново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и России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им Гон 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Игорь Моргулов провели 19 мая телефонные переговор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МИДе, он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сле вспышки COVID-19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ракетных испытаний Пхеньяна. Ким Гон призвал Россию игра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ую роль» в том, чтобы убедить Пхеньян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дальнейших действий, обостряющих ситуацию. Консультации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между РК и Россией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из-за того, что Сеул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анкциям против Москвы после ввода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на территорию Украины. Тем не ме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стран по ядерным вопросам продолжают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нтакты.

РК возобновляет выдачу краткосрочных и электронных виз

С 1 июня РК возобновляет выдачу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С-3 и электронных виз.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Их выдача был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с 14 апреля 2020 года в рамках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С-3 выдаётся максимум на 90 дней иностранцам, прибывающим в страну на отдых, лечение, для посещен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участия в офици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Электронная виза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иностранцам, подходящим под категорию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 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ам группов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ездок и прибывающим на лечение. Помимо этого, снимаются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ъезд иностранцам, чьи визы были выданы до 5 апреля 2020 года, но являются 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к данному моменту.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данные меры внесут вклад в привлечение в страну инвесторов и новых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В Сеуле растёт загруженность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сле отмены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мэрия Сеула расширила работ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ночное врем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столицы ежедневно перевозит более 10 млн человек,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уровню до пандемии. Как сообщили 18 мая в мэрии, в конце апреля объём перевозок составил 9 млн 930 тыс. человек, в первую неделю мая - 10 млн 70 тыс., а во вторую неделю - 10 млн 280 тыс.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С 9 мая власти продлили время работы автобус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объём перевозок вырос на 18,1%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ей неделей. Кроме того, за две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количество такси, работающих в ночное время, было увеличено вдвое - с 2.300 до 4.696.

Колумбия будет почётным гостем SIBF-2022

Колумбия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Сеульск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нижной выставке 2022 года (SIBF) в качестве почётного гостя, поскольку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60 лет с момен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3 мая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Крупнейшая в РК ежегодная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 пройдёт с 1 по 5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под девизом «Один маленький шаг». По сообщению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издателей, Колумбия представит свою культуру и литературу под девизом «Колумбия: творческая, разнообразная и братская страна». Около 30 колумби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проведут дискуссионные сессии, книжные выставки и культурные шоу. В колумбийском павильон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книги нобелевского лауреата Габриэля Гарсиа Маркеса, в том числе, «Сто лет одиночества» (1967 г.), «Любовь во время холеры» (1985 г.) и «Осень патриарха» (1975 г.).

(RKI)

В Сеуле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глав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21 мая в Сеуле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Юн Сок Ёля 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лидера Джо Байдена. Саммит завершился без особых сюрпризов. Как и предполагали большинство экспертов, Южная Корея с нов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торое приняло полномочия менее двух недель назад, подтвердила свои намерения куда активнее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Вашингтоном и следовать в фарватере его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ять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ехнологиям и активному участию в создаваемых США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ах.

Комментируя атмосферу встречи, корейские СМИ постоянно подчеркивали, что она была «очень теплой и дружественной», что было похоже на правду. Как известно, Юн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постоянно заявляли, что всю свою политику они намерены строить из соображени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теснейших союзн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 Вашингтоном. Судя по содержанию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похоже, что у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и руководства СШ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много спорных моментов и они правду куда ближе друг к другу, чем это было при экс-президенте РК Мун Чжэ Ине, который только 9 мая ушел с поста и до этог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рой портил нервы Вашингтону своей «чрезмерной прытью» по части попыток развития связей с Пхеньяном.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лидеры РК и США подтвердили уже давно озвученный тезис о том, что КНДР надо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а иначе на не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давление.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в целях сдерживания Пхеньяна решили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щенное в предыдущие пять лет двустороннее вое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союзники возобновляют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е военные маневры, США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 в Корею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виды вооружений, по поводу которых Юн в своей речи сказал, что это «могут быть современные истребители, ракеты и другое».

Сеул обещал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американских начинаниях по части выстраивания новых глобальны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сх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экономики и технологий. Это участие Южной Кореи в создани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цепочек, где не было бы присутствия Китая и где реализуется стратег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изоляции Поднебесной.

Кроме того, РК и США много говорил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о всех секторах космической сферы». Так, Вашингтон поддержал решение Сеул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США «Артемиды» (Artemis) по отправке людей на Луну.

В целом же Юн Сок Ёль прямо заявил о том, что «поддерживает стратегию США в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четко дав понять, на чьей стороне Сеул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глав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звучали не самые приятные для Китая тезисы

Несмотря на обилие критических слов в адрес России, похоже,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все же смогла отстоять свое нежелание поставлять Украине вооружение и технику, чтобы не провоцировать свой конфликт с Москвой. Хотя точно говорить тут сложно, но в договоренностях нет ни слова о военной-техническ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и.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президентов прозвучали не самые приятные для Китая тезисы типа «свободы навигации в Южно-Китайском море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Тайваньском проливе».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новые подробности инцидента 19 мая с задержанием полицией Сеула сотрудников Службы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одного из которых обвиняют в ударе корейца по щеке после возникшего спора по поводу того, кто должен ехать в такси в пятую часу утр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Secret Service, входящей структурно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ША, признали, что в инциденте были замешаны два их сотрудника, один из которых был пьян. В связи с инцидентом охранников немедленно отстранили от работ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пребыв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и первым же рейсом отправили на родину, где расследованием займутся уже американц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В Тэгу проходит Всемирная газов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 24 по 27 мая в городе Тэгу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ая Всемирная газовая конференция (WGC). На церемонии её открытия вы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н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нынешней нестабильной ситуации, отмети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аращива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пасов ресурсов,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путей их импорта и разработки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част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за рубежо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в достижении целей по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РК будет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АЭС, возобновляемую энергию и природный газ. По его словам, в отличие от преж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двигавшего политику отказа от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и,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энергетическую политику, в которой АЭС уделяется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Он заявил о планах создать стабильную цепочку поставок водорода, расширяя инвестиции в разработку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оздавая профильную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базу в стране и за рубежом. Это первое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Юн Сок Ёля после его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500 компаний из более чем 90 стран. Всемирные газовы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водятся с 1931 года.

KBS World

РК имеет большие запасы вакцины от оспы

Редкое заболевание оспа обезьян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в Европе, США,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В этой связи 23 мая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сообщили о наличии 35 млн 20 тыс. доз вакцин от оспы, которая эффективна в профилактике оспы обезьян. Данные запас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био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м угрозам. Эффективность данных вакцин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заражения оспой обезьян составляет 85%. По данным ВВС и ряда других иностранных СМ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Испания и Австралия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запасов вакцин. Оспа обезьян традицион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а в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и Западной Африки, 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лучаи заражения фиксируются в Европе и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е. По данным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в 12 странах выявлено около 100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Уровень смертности от заболевания составляет 3-6%. В ВОЗ ситуацию считают атипичной, поскольку большинство заболевших не ездили в страны, гд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а оспа обезьян.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 581 руб. 5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премонт п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1000 дво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тся к 1 октября

Такую задачу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67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17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На эти цел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41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больше всего дворов – 9 –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8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5 –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Н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не тольк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проезды и тротуары, но и установят скамейки, урны, детское игровое и спортив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бновят опоры освещения и обустроят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сбора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Все схемы обсуждаются и согласовываются с жителями, а после размещаются на сайтах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Еще на 68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в этом году проведут капремонт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з них 14 –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12 – в Холм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по 10 – в Углегорском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ах. В большинств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работы уже ведутс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все двор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евозможно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сразу, поэтому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масштабный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В 2021-ом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70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2022-ом намерены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В бюджете региона на эти цел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26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Программа минимум – 800 дворов, но мы стремимся к 1000. Советуемся с людьми и, если выявится потребность, будем ремонтировать больше. Вместе с дворами будем приводить в порядок подъезды, чтобы у людей было ощущение комфорта, когда они выходят из своих квартир. Нужно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лестничные марши, освежить стены краской, замазать трещины и побелить, сделать аккуратными провода, преобразить входные группы. Все это недорогие текущие работы,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дома и двор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танут уютнее и красиве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уже провели дефектовку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выявили потребность в ямочном ремонте. Специалистам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в этой работе активно помогал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волонтеры «Единой России»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В север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 Охе, Ногликах и Тымовском – дефектные ведомости составят в июне. Губернатор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завершить основной фронт работ в южных районах ко Дню России, 12 июня

На Сахалине в молодеж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трядах задействуют до 350 студентов

В регионе формируют 45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которые во время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будут трудиться на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ефтегазовая сфера, рыбпереработка, сервис и туризм, педагогика, горнорудная отрасль и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 создан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олодеж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трядов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 Для студентов –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явить себя,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своего дела и перенять их опыт. О пользе такой работы знаю не понаслышке – сам в студенческие годы трудился в молодежных коллективах. Это также чрезвычайно важно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найти мотивированных 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глашаю все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м важном деле,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исленнос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тряда – до 20 человек.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работ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 в каждой компании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свой уровень, но в среднем это не менее 35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оплата может быть увеличена.

– Ребята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квалификацию, что поможет им быстрее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А предприятия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от уплаты взносов в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РФ – это 22 процента от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тудента, – рассказа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ожеленко.

Вступить в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отряды могут студенты высших и средн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старше 18 лет. Прием заявок проходит на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бор учащихся начался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полностью сформирован отряд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ыбокомбината». Островных студентов задействуют также в нефтедобывающих проектах,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аэровокзала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Прием заявок от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дприятий завершится 30 ма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отряды будут сформированы к 10 июня.

Более 110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ереехали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к началу мая

Всего в 2022-ом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получат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2021-ом новоселье отметили около 4 тысяч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озв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ая перед депутатами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 ежегодным отчетом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новостройки сдали в Поронайске, Корсакове, селах Углезадовск и Стародубско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еле Зональн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в райцентре, на Итурупе.

– Мы держим курс на ускоренное расселение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приступила к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федеральные ресурсы. Мы существенно нарастили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дали рекордные 503 тысячи «квадратов» – это порядка 7 тысяч квартир. В этом году намерены держать планку,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чти треть всего строящегос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жилья является социальным. Помимо того, развивается индустриаль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 разворачиваются площадки под крупные жилые кварталы. Т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микрорайона «Горизонт».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до 2025 года новоселье там отметят 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ятся также жилые комплексы: «Уюн» и «Северный городок», где в перспективе смогут поселиться почти 2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артал»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Дальнем.

–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темп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регионе реализовали комплекс мер поддержки строите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Дано право на увеличение размера авансовых платежей по госконтрактам, применяется механизм изменения цены контракта для компенсации удорожан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Мы наращиваем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что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вает рынок первичного жилья и позволяет сдерживать стоимость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на островах,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масштабных планов в регионе создаются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пустили «Дом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1», где изготавливают железобетон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для крупнопане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кая технология позволяет возводить качественные современные дома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 Наша компания намерена реализовать большие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м сдать ряд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и детскую школу искусств в Анив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малоэтажного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Большая полянка» в Дальнем,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о развитию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ЛИГО» Сергей Табаков.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глава региона уделил внимание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Уже заключен контракт н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тделения поликлиники № 2 на 12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в Дальнем. Заверше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в октябр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приступят к возведени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рпуса школы № 30 на 550 мест в Луговом. Еще одна школа на 1260 мест на пересечении Комсомольской и Пограничной будет возводить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идет актив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циально важных объектов.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возводят школу и центр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селе Новом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ближается сдача детского сада. Благодаря пози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и одна запланированная стройка не остановилась, а даже, наоборот. В этом году возобнов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манежа и центра бок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роить ФОК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и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ударными темпами. Возводится более 1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на человек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7 место в России по количеству вводимого жиль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приемной председател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Наталья Захарчук.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ются вне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С помощью механизма концессии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ы на 1260 мест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на 240 мест на улице Больничной. Подписана концесс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На принцип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е од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ликлиники №4 и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а также поликлиник в Углегорске и Холмске.

Компания «Газпром»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 возводить

три объекта: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ледовую арену, а в последующем – школу на 1100 мест и детский сад на 240 мес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более 50 льгот в беззаяви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без лишней по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можно получить 17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Еще 35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ереведут в проактивный режим до 1 июля.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в ходе отчет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2021 году отчет перед депута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Мы сохранили все социа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бюджете 2022 года. Не повысили родительскую плату за детский сад. Приступили к ежемесячным денежным выплатам семьям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на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8 до 17 лет.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мощ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й заботы о жителях – одна из лучших в стране. Региона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 это почти 200 самых разных льгот, выплат, компенсаций по 94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слугам. 52 из них возможно перевести в проактивный режим. Человеку не нужно каждый раз подтверждать свое право на льготу, он должен получать ее автоматически,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на из 7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вошел в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в беззаяви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 Это выплаты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многодетным матерям, ветеранам труда, пенсионерам, выплаты на детей. Переход на проактивный режим – это часть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Если сказать просто в двух словах – социальное казначейство – это когда государство само предлагает помощь: адресную, простую в получении, отвечающую конкрет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основанную на данных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ах,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областная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Отметим,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островного бюджета-2022 важнейшим стал принцип приоритетности исполнения социаль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В этом году на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направляется более 74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з них более 19 миллиардов – на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селения.

Сфер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дна из самых развиты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обширный пакет мер поддержки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пенсионеров, инвалидов и други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Предусмотрены адрес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мощи люд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 Занимаясь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мы помогаем пенсионерам, инвалидам и всем, кто попал в трудную ситуацию, кому нужна поддержка. К счасть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чень большой пакет социальных гарантий, он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ять выплаты и льготы за сче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 д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и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нет и половины социальных мер,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сахалинцы. Выделяются средства на дорогостоящее лечение,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лекарств,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путевки в санатории, есть региональные выплаты для улучшения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Радует, что сейчас появились еще один проект конкретной помощи –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Людям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государство помогает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решении жилищных вопросов. А бизнес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необходимой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стали более 160 нуждающихся семей. Все это реальная забота о людях, которые здесь живут, – рас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Новопашина, координатор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серебряного волонтерства «Молоды душой».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помнил, что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сегодня дае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льготы разным категориям граждан. Например,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людей старше 70 лет – бесплатный проезд в городс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Для детей – бесплатное посещение аквапар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юди старше 55 лет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ходить в кино, на спектакли, занимать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Для всех владельцев карт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кидки в магазинах, аптеках, некоторых спортив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центрах. Всего по области более 300 культурных и около 60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предлагают свои мероприятия. Акти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уже стали более 40 тысяч человек.

Также в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ано приложение «Острова-65». С его помощью можно узнать о м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нформацию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дома, ценам на продукты в магазинах, оставить отзывы 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регионе.

В ходе отчет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лучени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от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Эта работа проводится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и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Кроме того, губернатор лично встречается с жителями островов. Все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проведено 13 встреч с населением, 2 раза в неделю проходят личные приемы граждан.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области, теперь все рабочие командировки чле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сопровождаются встречами с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가까운 유럽 옛말... 끊어진 하늘길에 러 극동 교민 시름

생계 걱정엔 귀국 고민... 러시아 환자들도 치료 못 받아 발 동동
기지가 켜던 교류 흔들... 양국 지자체 뱃길 복원 논의, 낙관 일러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가장 가까운 유럽은 이제 옛말입니다. 언제쯤 한국을 편하게 오가는 날이 다시 올까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두 달 넘게 한국과 러시아 극동을 연결하는 하늘길이 막히자 발이 묶인 우리 교민 등의 시름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어렵사리 열린 하늘길이 기약 없이 다시 끊기자 기지개를 켜려던 관광산업과 각종 교류 활동 등도 움츠러들고 있다.

◇ 닫혀버린 하늘·바닷길에 교민들 한숨

한국과 러시아 극동 간 하늘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에 닫혔다.

이후 2021년 5월 러시아 아브로라(오로라)·시베리아(S7) 항공 2곳이 인천~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정기 운항을 재개했고,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등 우리나라 항공사 2곳은 지난 1월 25일과 2월 5일 각각 정기 항공편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러시아 항공사들은 서방 제재 여파로 항공기를 모두 철수했다.

대한항공과 에어부산도 운항 재개 한 달 여만인 지난 3월 8일을 끝으로 인천~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유일한 대안인 강원도 동해~블라디보스토크 뱃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한 상태다.

해당 노선을 오가는 카페리(여객·화물 겸용선)는 이후 화물만 실어나르고 있다.

이처럼 잠시 숨통을 틔워줬던 인천~블라디보스토크 간 항로가 재차 끊기자 러시아 극동에 사는 교민들은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해주를 비롯해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등 러시아 극동에는 우리 교민 600명가량이 살고 있다.

지난 3월 90세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한국으로 갔던 한 교민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야 했다.

인천과 블라디보스토크는 항공기로 2~3시간 정도 거리지만, 직항로가 없는 까

닭에 이틀가량을 비행기와 공항 등에서 보내야 했다.

지난 22일 오후에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경유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행 항공기를 타는 한국인들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하늘길이 또 막히자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관광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자체·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컨설팅·마케팅업체 등 분야에서 일하는 교민들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상수 러시아 연해주 한인회장은 "코로나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늘·바닷길이 모두 막히자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부 교민은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연해주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제때 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현지 러시아인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의료여건이 우수한 한국에서 큰 수술을 받고 돌아온 극동지역 중증 러시아인 환자들은 오랜 시간 항공기를 탈 수 없는 까닭에 다시 한국을 찾아 후속 검진을 받거나 추가로 약 처방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일부는 급한 마음에 우리 교민들에게 대신 약을 구할 수 있는지를 수 소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의료관광 타격·교류 흔들

굳게 닫힌 하늘길은 우리 교민·기업뿐만 아니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각종 교류 활동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의료관광 분야도 이 같은 사례 가운데 하나다.

23일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토크지사에 따르면 우수한 기술과 편리한 시설 덕분에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선호도는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8년 한국을 찾은 러시아 환자는 2만7천185명으로 그해 전체 외국인 환자(37만8천967명)의 7.2%를 차지했다.

지난 2월에도 러시아인 120명이 수술,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직항로가 끊기면서 추가 관광객 모집은 중단됐다.

이런 까닭에 블라디보스토크지사에는 '언제쯤 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는지'를 묻는 현지 러시아인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연해주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온 경북도는 올해 들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연해주 사무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책임자가 교체될 시기와 맞물려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자 사무소 운영 재개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 양국 지방정부 뱃길 복원 논의... 낙관 일러

하늘길이 끊긴 상황은 러시아 극동지역 우리 교민들의 생활과 다양한 교류사업 등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할 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교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며 "서방 제재 영향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직항로가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교민들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 4월 초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인적 교류 등을 이어가기 위해 강원도에 카페리 여객 운송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따라 연해주 정부와 강원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총영사관 등이 모여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블라디보스토크·사할린주·하바롭스크주 등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70명이 특별 편성 여객선을 타고 한차례 강원도 동해항에 들어온 바 있다.

그러나 여객 운송 재개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양국 중앙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 긍정적인 결과를 속단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말로 깨달다]

몸이 되는 말, 스승과 제자의 말

몸이 되는 말은 말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말로 다시 풀어쓴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느님이었다고 요한복음에 쓰여 있으니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느님의 말과 우리의 말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말을 하고 사는 셈입니다. 그 말이 그대로 우리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이 몸도 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귀함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 교육 전공)

〈몸이 되는 말〉은 책 제목입니다. 올해 3월에 전현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배워서 정리한 책입니다. 책의 지은이에 '전현 읽음, 조현웅 배움'이라고 되어 있어서 특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역할이라곤 강의 녹취록을 책으로 내기 좋은 분량으로 줄인 일이었습니다만, 배움이라는 말로 제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제가 조금이나마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읽음, 배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새로운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읽음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읽었다는 말은 그 글을 이해했다는 뜻이고, 그 글이 내가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배움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내게 들어와 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그대로 몸이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표지만 읽고 깊이 생각하여도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우리가 누구의 글을 읽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배우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통한다면 그것은 다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면 공중에 떠도는 말일 뿐이죠. 뽀뽀이 흩어지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도 흩어집니다. 서로 한마음이 되는 말을 나누는 것이, 그리고 그 말로 힘을 얻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중생들과 구별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스승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고, 제자라는 말도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습니다. 스승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에는 정신적인 일체감이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스승이기는 하지만 모든 선생님이 스승인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제자이지만 모든 학생이 제자가 아닌 것도 틀림없습니다. 배운 사람은 많았으나 모두가 공자의 제자는 아닙니다. 모두가 부처의 제자도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의 말이 제자에게로 와서 몸이 되어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자의 말도 스승에게로 와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양방향이고 그래서 서로 고마운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배움의 현장이고 가르침의 장소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선 좋은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스승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그 배움이 내 몸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배운 것에 나의 노력을 더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한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경북궁 부역으로의 초대 '수라간 시식공감'

문화재청, 6월 8~20일 경북궁 소주방 권역에서 진행사전에약제로 5월 25일 오후 2시부터 예약 시작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와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최영창)이 함께하는 '2022년 상반기 수라간 시식공감'이 오는 6월 8~20일 경북궁 소주방 권역에서 펼쳐진다.

'수라간 시식공감'은 '밤의 생과방'과 '식도락(食道樂) x 시식공감'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경북궁 소주방 권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밤의 생과방'은 경쾌한 국악과 함께 경북궁 생과방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식도락 x 시식공감'은 수라간 최고 책임자인 상선 영감(도설리)과 대령숙수, 수라간 상궁과 함께 소주방 음식 이야기를 들으며 궁중음식을 체험할 수 있다. 도설리(都薛里)는 조선 시대 내시부에 속해 궁궐의 음식을 주관하는 일을 맡아보던 설리들의 우두머리를, 대령숙수(待令熟手)는 조선 시대 궁중의 잔치 때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남자 전문조리사를 말한다.

그리고 수라간 시식공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주방골목'에서는 행랑채 골목을 산책하며 초여름 밤의 더위를 달래줄 다양한 골목 간식으로 포계(조선시대 닭고기 구이), 수박, 연근부각, 약식, 도

라지정과, 박하계피를 맛볼 수 있다.

또한 '내소주방의 궁중다식 만들기'와 시식공감에서 준비한 선물과 함께하는 '노방 보자기 체험', 왕실전통 '격구 놀이' 등 조선왕실의 여름 맛이 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수라간 시식공감 행사는 사전 예약제로, 1인당 참가비는 2만 5천원이며, 최대 4인까지 예매할 수 있다. '밤의 생과방'과 '식도락 x 시식공감' 중 하나를 택해 예매할 수 있고, '주방골목'은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6월 8일부터 20일까지의 일정 중 15일부터 17일까지의 3일간 일정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한 방식으로 예약 받아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사 예매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을 통해 시작되며, 추첨제 운영기간(6.15.~17.)의 경우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예매가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02-3210-0778)로 문의하면 된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자세한 공모 정보와 공모전 참가 접수에 대해서는 사이트 <https://kino.znanierussia.ru/>에서 알아볼 수 있다.

В России снимут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умное кино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Знание» ведет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конкурс сценариев для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ов «Умное ки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опытные и начинающие документалисты могут до 27 мая 2022 года.

К участию принимаются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фильмы по таким темам, как искусство, культура, технологии и наука, соци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космос, а также история.

Победители первого тура конкурса получают приглашение в Москву. В столице они смогут пройти курс интенс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и прослушать лекции известны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Затем все конкурсанты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питчинге,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торого экспертный совет отберет авторов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Победителям питчинга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снять свой фильм. Созданные киноленты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Умное кино» в декабре в Москве, на котором экспертное жюри определит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оминациям.

Проект «Умное кино»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и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Цель проекта — создать новы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контент, который будет интересен молодежной аудитории, а также расширить аудиторию зрителей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кино.

Узнать подробности конкурса и принять в нем участие можно на сайте: <https://kino.znanierussia.ru/>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스쿼트 시즌 시작

5월 22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 종합단지에서 매주 일반 준비체조에 따른 체력 단련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여름과 재작년처럼 매주 일요일 안드레이 미로쉬니코프 코치의 지도로 무료 체력 단련 참가자들은 '고르니 워즈두흐' 중간 승강장에서 몸을 잘 푼 다음 이후 불세워크 산을 오르며 주기적으로 스쿼트를 하게 된다.

시작은 매주 일요일 10시 30분이며,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체력 단련 참가자들은 무료로 중간 승강장까지 케이블 카를 이용할 수 있다.

'고르니 워즈두흐'에서 일요일 체력 훈련 말고도 정기적 다양한 수업이 다른 야외 장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매주 12개의 무료 수업이 진행된다. 이는 편리하게도 훈련 시간이나 강도에 따라 선택의 폭도 넓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야외 무료 체력 단련은 벌써 5번째 시즌을 맞아 진행하고 있다.

야외 훈련은 10월 31일까지며 아침과 저녁에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체력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편리한 계획과 일정을 짤 수 있다.

Сезон приседаний откры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2-го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и еженедельные тренировки по общ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е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как и прошлым летом, и позапрошлым, и ранее, участники бесплатных развивающих занятий во главе с тренером Андреем Мирошниковым хорошо разбираются на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и после этого покоряют Большевик, периодически останавливаясь, чтобы поприседать. Начало —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в 10:30. С 10:00 до 10:20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тренировки на среднюю площадку бесплатно поднимает канатка.

Кроме воскресных тренировок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есть целый цикл разных занятий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Каждую неделю проводится 12 бесплатных занятий. Это очень удобно, есть большой выбор как по степени нагрузок, так и по времени тренировок.

Это уже 5-й сезон бесплатных тренировок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нятия на улиц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до 31 октября, есть как утренние, так и вечерние тренировки.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для себя удобный план и график посещени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Реклама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